

여교사의 근무시 의복착용 실태와 구성요인에 따른 착용감

A Study on Female Teachers' Clothing Wear Practice and Wearing Sensation depending on the Variables of Construction Factors

조 경 숙 · 권 수 애*

충북대학교 대학원 · 충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Cho, Kyeong Sook · Kweon, Soo Ae*

Chungbuk National Univ. Graduate School · Dept. of Home Management*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get the basic data to design the clothing for the female teachers. In this study, we survey the practice of the wear in the spring and the fall of the 422 female teachers in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and their wearing sensation according to clothing construction facto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emale teachers frequently wear blouse and skirt, jacket and blouse, jacket and T-shirts, cardigan and T-shirts in upper wear.

Second, most female teachers had troubles in their clothing at work. They had serious troubles in writing on the blackboard, due to the improper form and length of the sleeves, and the inconvenience of their skirt is due to the improper length, while they go up the strains.

Third, the comfortable factors of the female teachers' blouse are as follows; round neck line, soutien and peter pan collar, sleeve attached bodice with a little loose armhole, 10~20cm under from waist in length, front slit, and fastening bottoms.

In case of skirt, they perceive A-lined, flared, pleats skirt more conveniently than tight one, which are 10cm under from kneeline in length, side fastening system, back slit.

I. 서론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직업의 분화와 전문직의 발달은 종래의 미적 차원의 의복구성으로부터 기능적 차원의 의복구성의 필요성을 증대시켜 왔다. 즉, 일의 종류나 성질, 일하는 사람,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의복구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작업 중에 형성되는 인체의 동작이 의복때문에 구속된다면 인간은 의복의 저항을 받게되므로 피로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되며, 그 결과 작업능률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 작업 중에 입게 되는 작업복은 기능성, 심미성, 상징성, 경제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되지만, 사무직 종사자의 근무복인 경우에는 제 3자에게 보이는 직장 환경에서 타

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¹⁾.

그러나 작업복과 마찬가지로 사무직 종사자의 근무복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강의와 사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교사의 의복인 경우에는 다른 사무직 종사자의 근무복처럼 디자인 측면만을 중요시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교사는 학생과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형성으로 인하여 모든 측면에서 학생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으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의 모범 대상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교사의 신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므로, 학교 내외에서의 의복행동에 신중을 기하여 교육자로서의 사회적 기대에 적합한 의복을 착용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교사는 이러한 신분적 특성과 사회의 교사에 대한 보수적 역할기대 때문에 근무시에 착용하는 의복에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즉, 교육행정가 및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들은 교사의 의복행동 중 정숙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므로²⁾ 교사 본인의 개성과 기호는 거의 고려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수업활동 중 판서를 하는 등의 특수한 동작 특성이 있음에도 의복의 정숙성을 중요시하여 불편한 의복을 착용한 채 수업과 근무에 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경우 1960년대 중반부터는 교직에 있어 여교사의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1965년 25.5%에서 1994년에는 54.5%로, 중학교의 경우 16.1%에서 49.0%로, 고등학교의 경우는 8.9%에서 23.1%³⁾로 증가되어 왔다. 이와 같이 양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여교사의 근무시 의복의 착용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성은 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며, 교사 및 학생의 수업활동 효율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근무여건과 관련하여 여교사의 의복착용과 구성에 관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여기에 학습활동에 적합한 여교사 의복의 구성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시 착용하는 의복의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의복의 착용감에 영향을 주는 구성학적 요인을 밝힘으로써 셋째, 근무시 착용감이 좋은 여교사의 의복 디자인 개발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충청남·북도에 재직하고 있는 여교사 500명을 임의선정하였다. 1993년 12월에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1994년 3~5월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 중 초등학교에 재직하는 여교사

에게 200부, 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여교사에게 300부를 배부하였다. 이 중 시지역 소재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가 315명, 군지역 소재의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가 185명이었다. 최종분석에 이용한 설문지는 422부로 회수율은 84.4%이었다.

2. 측정도구 및 자료처리 방법

본 조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영역, 여교사가 봄·가을에 학교에서 착용하는 의복의 실태에 관한 영역, 여교사가 근무시 착용하는 의복의 쾌적·불쾌적 구성요인에 따른 착용감에 관한 영역으로서 총 6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의복구성 요인에 따른 착용감에 대해 블라우스와 스커트별로 블라우스는 9개 구성요인(넥크라인, 칼라, 소매, 커프스, 트임위치, 여밈형태, 블라우스 길이, 주머니 유무, 옆선 트임 유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것을 다시 각 형태별로 분류하였으며, 부분적으로 그림을 제시하여 형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스커트는 7개 구성요인(형태, 여밈위치, 길이, 주머니, 벨트, 트임의 유무, 트임위치)으로 제시하고 각 구성요인마다 형태별로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이에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착용감이 쾌적한 것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1. 아주 불편하다, 2. 불편하다, 3. 보통이다, 4. 편하다, 5. 아주 편하다).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한 각 문항에 대하여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χ^2 -test, t-test, F-test 그리고 LSD 사후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표 1>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0~39세가 가장 많고(48.7%), 기혼자가 80.6%를 차지하였다. 평균 신장은 158.9cm, 평균 체

중은 52.2kg이었다.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가 34.6%, 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가 65.4%이었으며, 이들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6시간 미만인 14.3%, 6~9시간 미만이 64.9%로 가장 많고, 9시간 이상이 20.8%로 나타났다. 보충수업을 포함한 1일 수업시간은 19시간 이하인 경우가 31.5%, 20~24시간인 경우가 32.3%, 25시간 이상인 경우가 36.2%로 나타나서 하루 평균 4~5시간의 수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항목	구분	N (%)	항목	구분	N (%)	
연령	20~29세	117(27.8)	1일 근무시간	6시간 미만	57(14.3)	
	30~39세	205(48.7)		평균	6~9시간미만	259(64.9)
	40세 이상	99(23.5)		근무시간	9시간 이상	83(20.8)
	계	421(100.0)		시간	계	399(100.0)
신장	155cm 이하	96(22.9)	1일 수업시간	19시간 이하	126(31.5)	
	156~160cm	207(49.4)		20~24시간	129(32.3)	
	161cm 이상	116(27.7)		25시간 이상	145(36.2)	
	계	419(100.0)		시간	계	400(100.0)
체중	50kg 이하	182(43.9)	수업진행 방식	토론식	46(11.0)	
	51~55kg	135(32.5)		강의식	244(58.2)	
	56kg 이상	98(23.6)		실험·실습	37(8.8)	
	계	415(100.0)		기타(병행)	92(22.0)	
결혼여부	미혼	82(19.4)	수업진행 방식	계	419(100.0)	
	기혼	340(80.6)		담당교과목	초등	117(27.8)
	계	422(100.0)			실업·가정	81(19.3)
학교급별	초등	146(34.6)	국어		37(8.8)	
			과학	14(3.3)		
			수학	28(6.7)		
	중등	276(65.4)	사회	42(10.0)		
			외국어	41(9.8)		
			체육	16(3.8)		
계	422(100.0)	예능	44(10.5)			
계	420(100.0)	계	42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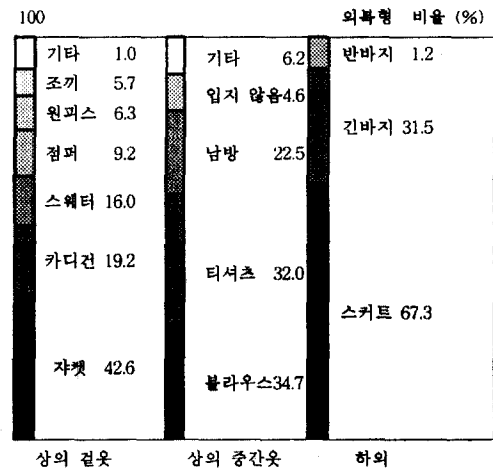
교사들의 수업 진행방식은 강의식 58.2%, 토론식 11.0%, 실험·실습 8.8%, 위의 방식을 2가지 이상 병행하는 경우가 22.0%로 나타나 주로 강의식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담당교과목은 초등교사 146명 가운데 117명은 초등교과목이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29명은 응답한 전담교과목명에 따라 분류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 여교사 중에는 실업·가정과 교사가 19.3%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이 예능, 사회, 외국어 과목 순이었다.

2. 근무시 여교사의 의복착용 실태

1) 상의(上衣)

여교사들이 봄·가을의 근무시에 자주 착용하는 의복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상의 걸음으로는 자켓(42.6%), 카디건(19.2%), 스웨터(16.0%)의 순이었고, 걸음으로서 조끼와 원피스는 잘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옷으로는 블라우스(34.7%), 티셔츠(32.0%), 남방(22.5%)의 순으로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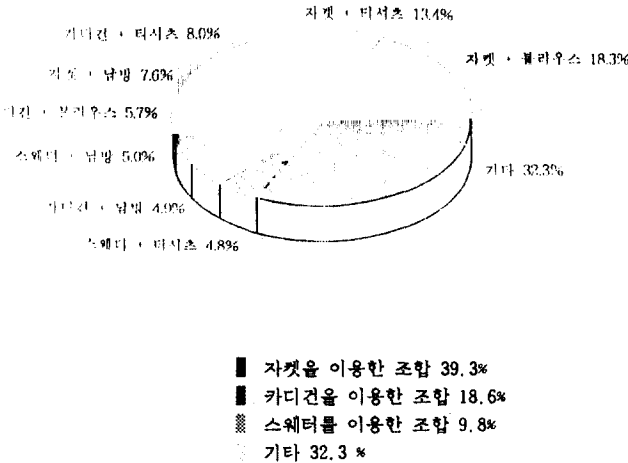


<그림 1> 여교사가 근무시 자주 착용하는 의복종류

가장 자주 입는 상의의 조합형태를 살펴보면, 자켓을 이용한 조합이 가장 많았고(39.3%), 카디건을 이용한 조합(18.6%), 그리고 스웨터를 이용한 조합(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켓을 이용한 의복조합 중에서도 자켓+블라우스(18.3%), 자켓+티셔츠(13.4%), 자켓+남방(7.6%)의 조합을 자주 착용하고 있으며, 카디건을 이용한 조합으로는 카디건+티셔츠(8.0%), 카디건+블라우스(5.7%), 카디건+남방(4.9%)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또한 조끼, 원피스, 점퍼를 이용한 의복 조합의 이용률은 낮게 나타났는데, 조끼를 착용할 때는 조끼안에 블라우스와 같은 중간옷을 잘 차려입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원피스의

경우는 팔을 높이 올리면 옷 전체의 길이가 달려 올라가는 불편함이 있어 기피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점퍼는 교내에서 교장·교감과 같은 교육 행정가 및 학생과 교외의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기대하는 점잖은 의복행동에 부합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 자주 착용하는 상의의 조합 형태

2) 하의(下衣)

여교사들이 근무시 자주 착용하는 하의는 스커트 67.3%, 긴바지 31.5%, 반바지 1.2%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스커트보다 바지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바지는 예(禮)를 갖추는 장소에서는 입지 않는 형태의 의복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교사에게 기대하는 의복행동이 보수적인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부적절한 형태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교사들은 근무시 춘추용 상의 걸음으로는 자켓을, 중간옷으로는 블라우스를, 하의로는 스커트를 즐겨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의복 이미지가 정장 스타일의 단정한 느낌을 주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3) 출근복과 근무복의 구분 착용 여부

<표 2>를 보면, 대부분의 여교사들은 출근복과 근무복을 구분하여 착용하지 않고 있었는데(92.7%), 여기에서 출근복이란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를 이동하는 동안 착용하는 의복

으로, 근무복은 학교내에서 퇴근하기 전까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복으로 제한하였다.

출근복과 근무복의 구분 착용 여부를 학교 급별로 알아본 결과, 구분하여 착용하는 경우가 초등계 재직자는 11.0%, 중등계 재직자는 5.4%로 나타나 초등 교사의 경우가 중등 교사의 경우보다 출근복과 근무복의 착용을 구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p < 0.05$). 이것은 아마도 초등 교사의 경우는 하루 종일 여러 교과목을 담당해야 하므로 그만큼 활동의 폭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표 2> 출근복과 근무복 구분 착용 여부

조사대상자 구분 구분착용 여부	N(%)			$\chi^2=4.281$ $p=.039$
	전체	초등	중등	
구분함	31(7.3)	16(11.0)	15(5.4)	
구분하지 않음	391(92.7)	130(89.0)	261(94.6)	
계	422(100.0)	146(100.0)	276(100.0)	

3. 근무시 의복으로 인한 불편 경험

여교사가 학교에서 근무 중 의복으로 인하여 불편을 경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응답자의 99.3%가 '불편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여교사의 근무시 의복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불편의 경험 여부를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결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기혼 여교사(69.8%)보다 미혼 여교사(84.8%)가 근무 중 의복으로 인한 불편을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이러한 결과는 의복을 선택하여 착용할 때, 기혼 여교사는 미혼 여교사보다 더 편안한 스타일의 의복을 선택하여 착용하지만 미혼 여교사인 경우에는 기능성보다는 미적 측면을 더 중시하여 의복을 선택·착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교사들이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의복의 형태로는 원피스(57.5%)와 스커트형의 투피스(40.0%)이었다(표 4). 조사대상자의 40%가 투피스(스커트)를 불편한 의복형태라고 응답 하였으면서도 자켓과 스커트를 이용한 투피스

형태의 옷차림을 가장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표 3> 근무시 의복으로 인한 불편경험 유무 N(%)

조사대상자 불편경험 유무	전 체			$\chi^2=7.188$ p=.007
	미 혼	기 혼		
있 다	419(99.3)	67(84.8)	222(69.8)	
없 다	3(0.7)	12(15.2)	96(30.2)	
계	422(100.0)	79(100.0)	318(100.0)	

1) 상의의 불편

근무 중 상의로 인한 불편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경우는 '수업 중 판서할 때'가 68.9%, '수업자료의 사용이 많거나 실험·실습시' 21.0%, '앉아서 사무처리할 때'가 5.3%로 나타났다. 불편을 경험한 의복측 요인을 살펴보면, 상의의 소매 형태 및 길이(43.3%), 상의의 길이(23.8%), 여밈(11.2%), 목둘레 파임(10.6%), 칼라(1.4%), 기타(9.7%)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여교사에게는 소매가 가장 불편한 의복구성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의 형태와 길이를 불편한 원인으로 인지하는 이유는 교사들은 수업 중 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때 팔의 움직임이 상향 0~180° 사이로 빈번하게 이동되므로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큰 범위의 동작을 수용할 수 있는 소매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소매 길이가 길거나 소매 부리가 늘어지는 형태인 경우에는 판서시 소매 끝이 칠판에 닿게 되어 분필가루 등의 오염이 묻게 되므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의의 길이가 너무 짧으면 몸을 앞으로 굽히거나 팔을 올리는 동작시 속옷이 보일 염려가 있고, 길이가 너무 길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2) 하의의 불편

하의로 인하여 느끼는 불편은 '계단을 오를 때(48.9%)', '의자에 앉을 때(33.7%)', '판서할 때(9.2%)', '걸을 때(2.9%)' 등이었는데 이러한 불편은 하의의 적절치 못한 길이(54.3%), 트임의 위치나 분량(26.9%), 폭(15.5%)때문이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교사들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

지 않은 대부분의 학교 건물구조 속에서 수시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데 최근의 유행현상은 슬리트가 짧거나 없는 타이트 미니 스커트로서 이런 형태의 스커트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하며, 더우기 발걸음을 뒀 때마다 뒷트임 사이로 속옷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므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도 불편한 상태가 더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업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에는 의자에 앉아 업무처리를 하게 되므로, 짧은 타이트 형태의 스커트를 착용했을 경우에는 스커트가 무릎 위로 올라가고 엉덩이 둘레에 여유가 적기 때문에 둔부와 넓적다리에 구속감을 느끼게 되어 불쾌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의복의 불편 요인

항 목	구 분	N (%)	
불편한 의복 종 류	원피스	164(57.5)	
	투피스(스커트)	114(40.0)	
	투피스(바지)	1(0.4)	
	기타	6(2.1)	
	계	285(100.0)	
불편했던 경 우	상 의	수업 중 판서할 때	273(68.9)
		수업자료의 사용이 많을때나, 실험실습시	83(21.0)
	하 의	앉아서 사무처리할 때	21(5.3)
		수업 중 설명할 때	10(2.5)
		기 타	9(2.3)
		계	396(100.0)
		계단을 오를 때	186(48.9)
의자에 앉을 때	128(33.7)		
판서할 때	35(9.2)		
걸을 때	11(2.9)		
기타	20(5.3)		
계	380(100.0)		
불편한 부 분	상 의	소매 형태 및 길이	151(43.3)
		상의의 길이	83(23.8)
		여밈	39(11.2)
		목둘레의 파임	37(10.6)
		칼라	5(1.4)
		기타	34(9.7)
계	349(100.0)		
하 의	하 의	길이	200(54.3)
		트임의 위치나 분량	99(26.9)
		폭	57(15.5)
		기타	12(3.3)
		계	368(100.0)

4. 블라우스와 스커트의 구성요인에 따른 착용감

여교사들은 봄·가을에 근무시 가장 자주 착

용하는 상의의 걸음으로는 자켓, 중간옷으로는 블라우스, 그리고 하의로는 스커트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켓과 블라우스의 자주 착용되는 상의 중 블라우스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그 이유는 자켓은 근무 중에도 착용이 가능하여 자켓보다는 블라우스가 더 기본적인 의복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교사의 근무시에 적합한 쾌적한 의복 개발을 위하여 블라우스와 스커트별로 의복구성요인에 따른 착용감을 조사하였다.

1) 블라우스

블라우스의 각 구성요인에 대하여 착용감을 조사한 결과를 <표 5>에 나타내었다.

(1) 네크라인

네크라인은 목둘레를 파는 것으로, 얼굴과 가까운 부분에 위치하여 목과의 중개역할을 하며 착시(錯視)효과로서 얼굴형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⁴⁾. 파는 모양에 따라 종류가 많으나 시장조사와 예비

<표 5> 블라우스의 각 구성요인에 대한 착용감

구 성 요 인		착용감 Mean ± SD	F-value (t-value)	LSD ($\alpha=0.05$)
네 크 라 인	라운드	4.21 ± 0.74	330.25***	A
	스퀘어	2.70 ± 0.78		C
	브이	3.10 ± 0.97		B
칼 라	스테인·피터팬	3.96 ± 0.83	163.73***	A
	롤·차이니스	2.96 ± 0.88		C
	리본·리플드	2.72 ± 0.84		D
	스포츠	3.75 ± 0.81		B
	셔츠	3.85 ± 0.85		AB
소 매 형 태	타이트형	2.50 ± 0.97	164.57***	C
	물면형	3.10 ± 0.92		A
	비습형	3.21 ± 0.89		B
길 이	허리까지	2.54 ± 0.86	265.83***	C
	허리 밑 10cm~20cm	3.82 ± 0.73		A
	허리 밑 20cm 이상	3.34 ± 1.05		B
여 밍 형 태	단추여밈	3.73 ± 0.77	351.70***	A
	지퍼여밈	3.48 ± 0.84		B
	끈여밈	2.89 ± 0.74		C
트 임 위 치	앞	3.48 ± 1.10	(-9.109)***	
	뒤	2.69 ± 0.94		
주 머 니	있을 때	3.89 ± 0.88		
옆 선 트 임	있을 때	3.22 ± 0.85		
커 프 스	있을 때	3.21 ± 0.84		

*** p<.0001

조사를 참고로 하여 기본형인 라운드, 스퀘

어, 브이 네크라인의 3가지 형을 설문지에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라운드 네크라인(4.21), 브이 네크라인(3.10), 스퀘어 네크라인(2.70)의 순으로 쾌적하게 인지하였다(P<.0001).

(2) 칼라

칼라는 목의 동작, 착용감에 영향을 주며 패션, 기호 등이 강하게 표현되어 외관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블라우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칼라의 형태를 5가지로 분류하고 제시한 결과, 스테인·피터팬 칼라(3.96), 셔츠칼라(3.85), 스포츠 칼라(3.75), 롤·차이니스 칼라(2.96), 리본·리플드 칼라(2.72)의 순으로 쾌적하게 인지하여 스테인·피터팬 칼라와, 셔츠칼라를 가장 편한 형태로, 리본·리플드 칼라 형태를 가장 불편한 칼라 형태로 답하였다(p<.0001). 리본·리플드 칼라를 가장 불편하게 인정한 것은 착탈시 번거로우며 착용 도중 여밈이 풀어지거나 리본이 늘어지고 너풀거리어서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소매

소매는 시장조사와 예비조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타이트형, 물면형, 비습형의 3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설문지에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물면형(3.70), 비습형(3.21), 타이트형(2.50)의 순서로 쾌적하게 인지하고 있었다(p<.0001). 교사는 수업을 진행할 때, 특히 판서시에는 상향 90° 이상의 상지상거 동작이 불가피하므로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상지의 움직임이 보장되는 소매형태가 요구된다. 따라서 여교사가 가장 불편한 소매 형태라고 응답한 타이트소매인 경우에는 소매에 여유분이 부족하여 상향 수직동작시에는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진동이 깊고 옆길이가 짧은 드랩숄더 형태의 소매는 상향 90° 정도까지는 움직임이 자유로우나 그 이상의 동작에서는 옆숄더선이 많이 당겨 올라가게 되어 상지상거 운동을 구속하며, 소매산이 낮고 소매폭이 넓으며 소매 밑이 긴 소매일수록 수직운동에 의한 소매부리 당김량과 웨이스트 당김량이 적다⁵⁾고 한 선행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이 많은 여교사의 상의 제작시 소매의 형태 및 소매산, 소매폭 등을 조정하여 소매의

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4) 블라우스 길이

팔의 운동에 따르는 등길이, 옆길이, 팔길이의 변화를 통해서 기능적인 블라우스의 길이를 구하여 외관 및 기능상 필요한 블라우스 길이를 산출한 선행연구⁶⁾에서, 평상용 블라우스로는 허리선에서부터 15cm 정도가 필요하며, 운동용으로는 21cm 정도의 여유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에서 여교사들은 블라우스의 길이가 허리 밑 10~20cm일 때 가장 쾌적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p < .0001$) 블라우스의 길이가 20cm 이상 긴 경우, 스커트 속에 블라우스를 넣어 입게 되면 속으로 겹쳐지는 분량이 많아 옷의 태를 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허리와 엉덩이 뒷부분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며, 스커트의 밖으로 내어 오우버(over) 블라우스 형식으로 입을 경우에는 길게 내려온 상의로 인하여 단정하지 못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착용감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허리까지 오는 블라우스 길이는 판서시 도련이 당겨 올라가 속옷이 보이게 되므로, 너무 짧거나 길지 않은 20cm 정도의 길이를 쾌적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여밈방법

여밈방법은 단추, 지퍼, 끈여밈 중에서 단추여밈에 대한 착용감이 3.73으로 가장 높았고, 지퍼여밈은 3.48, 끈여밈은 2.39로 나타났다($p < .0001$). 블라우스에 지퍼여밈의 방법은 구성상 가벼운 느낌을 주어야 하는 블라우스가 자칫 무거운 분위기로 연출될 수 있으므로 미적 측면에서 조화되기 어려운 여밈방법이며, 블라우스 소재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재질의 물성으로 보아 지퍼를 달기에는 적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밈 조작이 간편하기 때문에 끈 여밈보다 쾌적하게 인지한 것으로 사료된다.

(6) 트임위치

의복을 입고 벗기에 있어서는 목부위보다 큰 머리부위를 통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칼라의 디자인에 따라 반드시 트임의 위치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블라우스의 트임위치에 대해서는 뒷트임(2.69)보다 앞트임(3.48)을 더 쾌적하게 인지하였다($p < .0001$). 뒷트임의 경우에는 앞트임의 경우보다 착탈의

용이성이 떨어지며, 착용 도중 여밈이 풀어져도 쉽게 확인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7) 주머니, 옆선트임, 커프스

주머니가 블라우스에 부착된 경우의 착용감 점수는 3.89로 높았으며, 옆선트임이 있는 블라우스는 상체의 동작범위를 확대시켜 좀 더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착용감(3.22)은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소매에 커프스가 있는 경우도 착용감은 보통(3.21)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스커트

여교사가 봄·가을에 자주 착용하는 하의의 형태인 스커트의 구성요인에 대한 착용감을 조사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1) 스커트 형태

여교사는 플레어형(3.84)·에이라인형(3.80)·폴리츠형(3.77)을 타이트형(2.82)보다 더 쾌적하게 인지하였다($p < .0001$). 하지의 운동에서는 고관절(股關節)과 슬관절(膝關節)이 전면과 후면의 체표의 신축을 상반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스커트를

<표 6> 스커트의 각 구성요인에 대한 착용감

구 성 요 인		착용감 Mean ± SD	F-value	LSD ($\alpha=0.05$)
형 태	타이트형	2.82 ± 0.92	124.84***	B
	에이라인형	3.80 ± 0.66		A
	폴리츠형	3.77 ± 0.91		A
	플레어형	3.84 ± 0.92		A
	무릎 위 10cm 이상	1.88 ± 0.89		D
길 이	무릎과 동일	3.25 ± 0.87	152.10***	B
	무릎~무릎 밑 10cm	3.43 ± 0.81		A
	무릎 밑 10~20cm	3.26 ± 0.98		B
	무릎 밑 20cm 이상	3.06 ± 1.26		C
여밈위치	앞여밈	2.89 ± 0.89	63.87***	C
	옆여밈	3.61 ± 0.84		A
	뒷여밈	3.25 ± 0.92		B
트임위치	앞	2.53 ± 0.85	216.18***	C
	옆	2.84 ± 0.87		B
	뒤	3.72 ± 0.74		A
주머니	있을 때	4.25 ± 0.68		
커프스	있을 때	3.19 ± 0.90		
트임	있을 때	3.53 ± 0.82		

*** $P < .0001$

입고 의자에 앉았을 때 타이트 스커트의 경우는 앞의 서경구부(鼠徑溝部)에 천이 접혀져서 무릎부위에서 그것을 잡아내릴 수가 없으나, 플레어 스커트, 개더 스커트와 같이 폭에 여

유가 있으면 서경구부에 주름이 생기지 않으며 무릎을 덮을 수가 있어서⁵⁾ 활동을 편하게 해준다. 따라서 여교사들은 이러한 불편때문에 타이트 스커트를 근무용으로 쾌적하게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폴리스 스커트의 경우, 하지의 활동성은 보장할 수 있으나 앉고 일어서는 동작의 반복이 많은 여교사와 같은 사무직 종사자에게는 주름을 오랫동안 단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방추성이 큰 소재를 선택하여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2) 스커트 길이

스커트의 길이는 유행은 물론 착용자의 연령, 직업, 체형, 착용 목적, 계절 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여교사에게는 품위를 잃지 않는 길이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승희 등⁷⁾은 여교사에게 가장 적합한 스커트 길이를 샬라라인이라고 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는 무릎~무릎 밑 10cm(3.43), 무릎 밑 10~20cm(3.26)·무릎과 동일(3.25), 무릎 밑 20cm 이상(3.06)의 순으로 쾌적하게 인지하였고, 무릎 위 10cm 이상의 짧은 스커트에 대한 착용감(1.88)은 매우 낮았다. 여기에서 최근의 유행은 미니 스커트 또는 발목까지 오는 긴 길이의 스커트임에도 불구하고, 무릎 위 10cm 이상의 짧은 스커트와 무릎 밑 20cm 이상의 긴 스커트에 대한 착용감이 낮게 나타난 것은 기능적 측면에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의복의 정숙성을 중시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여밈과 트임위치

스커트의 여밈(지퍼) 위치로는 옆여밈(3.61)을 가장 선호하였다($p<.0001$). 이것은 앞여밈(2.89)의 경우는 착의 중에 여밈 부분이 외관상으로 돌출된 듯하여 단정한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뒷여밈(3.25)의 경우에는 여밈이 열려 있어도 착용자가 불수 없어 불안하며, 동작시 스커트가 움직여서 뒷중심선이 착용자의 뒤 정중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주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스커트가 뒷여밈의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체의 운동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의복에 여유분을 적당하게 주어야 하는데, 스커트의 경우는 트임을 통하여 인체 동작의 범위를 넓혀줄 수 있어서 운동기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트임이 있는 경우의 착용감(3.53)은 '보통'보다 약간 쾌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트임의 위치에 대해서는 옆트임 스커트가 뒷트임 스커트보다 착탈이 용이하여 더 쾌적하게 인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뒷트임(3.72)을 가장 쾌적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특히 앞트임의 경우는 보행시나 의자에 앉았을 때 속옷이 정면에서 더 잘 보이게 되기 때문에 착용감이 제일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숙⁸⁾은 보행이나 계단 승강시 등의 하지의 움직임을 고려해야 하며, 계단 승강시에는 보행시보다 뒷트임의 요구량이 더 크고, 그 차이는 평균 길이는 2cm, 너비는 0.8cm라고 하였다. 평균 뒷트임 분량은 슬림형은 길이 16cm, 너비 5.8cm, 타이트 형은 길이 12.4cm, 너비 1.1cm, 세미타이트형은 길이 3.1cm, 너비 1.1cm의 뒷트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계단 승강을 자주해야 하는 여교사의 스커트에 뒷트임을 줄 경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동작적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근무에 적합한 의복 구성시 고려할 점과 선택시 제한점

여교사 본인이 직접 근무에 적합한 의복을 구성할 경우에 고려할 점과 선택시의 제한점에 대한 반응을 <표 7>에 나타내었다.

<표 7> 근무에 적합한 의복 구성시 고려할점과 선택시 제한점

항 목	구 분	N (%)
구성시 고려할 점	활동성	327(77.9)
	심미성	39(9.3)
	실용성	38(9.0)
	정숙성	12(2.8)
	기 타	4(1.0)
	계	420(100.0)
선택시 제한점	기능성 측면	20(5.2)
	정숙성 측면	361(94.8)
	계	381(100.0)

'여교사 본인이 근무에 적합한 의복을 직접

구성한다면, 어느 면에 가장 중점을 두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활동성(77.9%), 심미성(9.3%), 실용성(9.0%), 그리고 정숙성(2.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활동성을 고려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여교사들은 활동적인 근무시 의복에 대한 요구가 가장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사들이 근무를 위한 의복을 구입할 때는 활동성을 보장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적인 의복을 선택(5.2%)하기 보다는 다소 기능성은 떨어지더라도 정숙성을 강조하는 의복을 선택(94.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교육행정가,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들은 교사의 의복행동 중 정숙성을 가장 중요시²⁾하고 있기 때문에 여교사들은 활동하기 편하여 입고자 원하는 디자인의 의복을 구매하지 못하고 정숙성을 기대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게 의복을 구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정숙성 측면을 고려한다'는 응답을 분석하여 보면, 여교사들은 근무용 의복을 구매할 때 원색계열의 색상은 피하고(56.6%), 노출과 밀착의 정도를 고려(41.4%)하며, 장식이 많아 요란한 느낌을 주는 옷은 구입하지 않는 것(2.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교사는 교사에 대한 일반인의 역할기대에 적합한 의복을 선택하는 것을 우선하여 기능성이 떨어지는 의복 착용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그들의 역할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으면서 기능성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의복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여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써 초·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여교사를 대상으로 봄·가을 근무시에 착용하는 의복의 착용실태 및 구성 요인에 따른 착용감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여교사들이 즐겨 착용하는 상의의 걸 옷은 자켓, 중간옷은 블라우스, 하의로는 스커트로 나타났으며, 주로 착용하는 상의의 조합은 자켓+블라우스, 자켓+티셔츠, 그리고 카

디건+티셔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교사 대부분은 근무 중 의복으로 인하여 불편을 경험하고 있는데, 상의로 인한 불편은 수업 중 판서할 때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여러 불편함의 원인은 소매의 형태 및 길이 때문으로 인지하였다. 하의로 인해 불편한 경우는 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오를 때인 것으로 인지하였으며, 불편의 원인은 적절치 못한 스커트 길이, 부적절한 트임의 위치와 분량, 폭 때문으로 인지하였다.

셋째, 블라우스의 의복구성 요인에 따른 착용감을 조사한 결과,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것은 네크라인 중에는 라운드 네크라인, 칼라 중에는 스테인 칼라, 피터팬 칼라를, 소매 형태 중에는 진동 둘레에 여유가 많은 돌면형의 소매를, 블라우스의 길이로는 허리 밑 10~20cm를, 트임위치로는 앞트임을, 그리고 여밈 방법으로는 단추 여밈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커트의 경우, 형태로는 타이트형보다는 에이라인형, 플레어형, 플리츠형을, 길이는 무릎~무릎 밑 10cm, 여밈위치로는 옆여밈을, 트임위치로는 뒷트임의 착용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교사의 근무시에 적합한 블라우스는 상체의 급힘동작과 좌우 회전동작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칼라를 구성하며, 무엇보다도 상지의 상거동작을 수용할 수 있는 소매의 형태 및 길이, 그리고 오염이 잘 묻지 않도록 하는 형태의 소매단 처리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스커트의 경우는 계단을 오를 때와 착석시에 하지를 구속하지 않도록 스커트의 폭과 둘레에 여유를 고려하고, 여교사가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쾌적하게 인지할 수 있는 스커트의 길이 및 트임위치, 트임 양, 여밈방법 등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정숙성과 심미성, 그리고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루피스 형태의 의복을 디자인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여교사에게 적합한 근무용 의복 스타일을 위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구성요인적 접근 외에 소재와 색상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본다면, 오염이 잘 눈에 안 띄는 색상의 소재와 품위가 있으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색상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교사의 쾌적한 근무를 위한 의복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교사들의 근무시 동작특성을 파악하고 본 연구의 설문결과에서 가장 쾌

적하다고 평가된 의복구성 요인을 조합하여 실험복을 제작한 후, 실제의 활동 상황에서 착의실험하여 쾌적감을 평가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의복구성의 방향은 착의자와 인지자의 욕구를 동시에 분석·종합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의복 이미지에 적합하도록 디자인과 소재면에서 계획되어야 하고, 대량생산 체제하에서의 의류제품의 생산방향은 이러한 과정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종합하는 시스템을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1. 이순원·조길수·이영숙 역 (1991), 일본섬유기계학회·피복학체계화분과회(편), 피복과학총론, 서울: 교문사.
2. 민귀영 (1990), "교사의 의복 행동에 대한 반응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한국교육개발원(1994), 한국의 교육 지표.
4. 임원자 (1987), 의복구성학, 서울: 교문사.
5. 박혜숙 편 (1994), 피복구성학, 서울: 경춘사.
6. 石毛つシ子 (1983), 被服의 立體構成, 東京: 同文書院.
7. 이승희, 임숙자 (1991), "여교사의 이상적인 외모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2), 15~28.
8. 김정숙 (1992), "동작에 따른 타이트 스킷의 뒤트임 분량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4), 139~147.